

유아들에게 있어서 '음악하기'의 의미 -통합 음악 활동을 중심으로-

Meaning of 'Musicing' to the Children -Centered on Comprehensive Musical Activities-

김수임

대구공업대학교 유아교육과

Soo-Im Kim(sooim2020@yahoo.co.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들의 통합 음악활동 중에 나타나는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유아들에게 있어 '음악하기'의 진정한 의미를 질적 연구방법으로 고찰해 봄으로써 유아음악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의 모색과 질적으로 보다 우수한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9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D시에 소재하고 있는 S 어린이집 만 4세 햇님반 유아 15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 관찰 내용은 현장 기록으로 작성하여 자료화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유아들의 음악적 경험의 범주- 노래 부르기, 음악듣기, 신체표현하기, 리듬 및 박자 익히기, 악기 연주하기-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들에게 있어 '음악하기'의 의미는 '움직임 만들기'와 '따라 하기'를 통한 마음의 주고받기, '즐겁고 기대되는 놀이', '악기는 곧 놀잇감', 그리고 '진짜로서의 '나'를 찾아가기'로 나타났다.

■ 중심어 : |음악하기|음악적 경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new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music education and to provide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improved music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through the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what 'musicing' means to children on the basis of musical experiences - singing, listening, body expression, learning rhythms and time, playing instruments - in the children's comprehensive musical activities. The study was carried out from September 5th, 2011 to November 25th, 2011, on 15 4-years-old children in Haetnim-class, in S nursery, in the city of D. The observations were recorded in the field and materialized, and the collected materials were categoriz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s that 'doing music' to children means 'making movements,' 'sharing emotions through imitation,' 'fun activity that one can look forward to,' 'musical instruments as playthings,' and 'finding 'the true me'.

■ keyword : |Musicing|Musical Experience|

I. 서 론

요즘은 예전에 비해 유아들이 음악을 접하는 연령대

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여러 다양한 음악적 환경에 쉽게 노출된다.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노래를 한 번도 부르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음

접수번호 : #120808-005

접수일자 : 2012년 08월 08일

심사완료일 : 2012년 10월 11일

교신저자 : 김수임, e-mail : sooim2020@yahoo.co.kr

악은 항상 유아들 가까이에 있다. 비록 유아들의 음악적 경험이 유아 개개인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게 구성된다 하더라도 유아들은 비슷한 음악적 맥락 안에서 즐거움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음악적 태도를 배우게 된다. 이러한 음악적 '배움'은 유아의 내적 음악 체험의 방식 또는 질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유아 스스로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음악적 성장은 유아기의 음악적 경험이 어떠한지에 따라 좌우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아들의 음악적 경험은 음악을 탐색, 모방, 실험하는 데서부터 출발하여 점차 음악을 식별, 조직화, 창조하는 활동으로 발전한다[9]. 그러므로 유아의 음악적 경험은 단지 음악적 기능을 습득하고 훈련하는 데 치중하기보다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음악 활동들을 유아 스스로 경험, 반응하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유아교육의 흐름은 유아들에게 보다 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경험을 통해 학습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특히 음악 활동에서는 유아 주위의 소재로부터 유아들에게 친숙한 활동 등을 통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 활동이 비교적 유리하다[11]. 통합적 음악 접근은 음악 내적 차원의 통합과 음악과 타 영역간의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12]. 전자는 일련의 음악 학습을 함에 있어서 듣기, 노래 부르기, 연주하기, 창작하기 등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음악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고, 후자는 음악적 활동이 요구하는 인지적 능력의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하며 그 이상의 학습 영역, 즉 타 영역간의 연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통합적 접근에서의 다양한 음악적 경험은 유아들로 하여금 '음악하기'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도록 돕는다. '음악하기'란 20세기 후반 미국음악교육 전반에 팽배해 있던 '심미적 음악교육론'에 반대하여 엘리엇[16]에 의해 주장된 과정중심, 실천중심의 음악교육 철학 사조이다[4]. 이에 의하면 유아들은 음악을 통하여 다른 방식으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무엇인가 특별함'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대한 의미도 다양하게 구성하게 된다[4]. 엘리엇은 음악이란 '음악 작품'이 아니라 '음악 행위'이며, 음악의 궁극적인 실체는 음악 작품이 아니라 '음악 만들기, 음악하기(music making, or musicing)'라고 하였다[1]. 또한 음악교육에

서 '음악하기'란 단지 어떤 목적의 성취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보았으며, 음악교육에서 다루는 음악적 경험은 심미적 경험만이 아니라 인간적, 참여적, 회화적, 사회적, 개인적 의미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16].

한편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음악교육에 대해 살펴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음악 활동의 대부분은 단원별 주제에 따른 교사 주도하의 노래 부르거나 노래 가사에 맞춰 움직이는 소극적이고 비구조적인 음률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각 음악 활동 영역 간의 통합 활동도 음악과 신체 동작 표현 활동이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아들이 통합적 음악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체험하고, 음악하기의 본질을 느끼고 구성하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유아 음악 활동에서의 통합적 음악 활동의 효과를 비교, 검증한 선행 연구들은 양적 연구를 통하여 이미 밝혀진 바가 많다. 그러나 통합적 음악 활동을 통한 유아들의 '음악하기'의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4세 유아들이 음악 활동에서 갖게 되는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음악적 경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유아들에게 있어서 '음악하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유아들의 음악 수업을 참여관찰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에게 음악적 경험이란 무엇인가? 둘째, 유아들에게 있어서 '음악하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있어서 음악하기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음악수업을 관찰함으로써 보여 지는 그대로의 유아들의 음악적 경험의 의미와 음악하기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음악 활동의 다양한 맥락 안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훗설(E. Husserl)은 인식의 대상과 주체와의 끊임없는 의미부여의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지향성'의 원리에 따라 '나타난 그대로'의 현상[2]을 파악하기를 강

조한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만 4세 유아들의 통합 음악 활동을 참여 관찰함으로써 유아와 유아 간,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나타나는 유아들의 음악적 경험이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유아들의 음악하기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자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의 참여관찰은 수동적으로 진행되어 연구 참여자인 유아 및 교사의 수업 현상들을 그들의 맥락 속에서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었으며, 유아의 몸짓이나 말투, 억양 등 유아의 감정 변화 양상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전사, 기록함으로써 유아들의 느낌이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참여 어린이집과 연구 참여자

1.1 참여 어린이집

본 연구에 참여한 어린이집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들의 음악수업을 관찰하기 위해 선정된 D시에 위치한 S 어린이집이며, 음악수업은 외부에서 파견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S 어린이집은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책, 바깥놀이, 텃밭 가꾸기 등의 활동도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하루 일과중 노래 부르기와 손유희와 같은 간단한 음악활동은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특히 외부 음악교사가 주 1회 학급별로 방문하여 유아들과 함께 다양한 음악 활동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었다.

1.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S 어린이집 햇님반 만 4세 유아들로서 남아 7명, 여아 8명으로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었다. 유아들은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통해 등·하원하며 남아, 여아의 구분 없이 서로 잘 어울려 놀이와 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들의 아버지는 대체적으로 회사원, 공무원,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유아들의 어머니는 전업주부, 교사, 전문직 종사자였다. 또한 부모의 학력은 대부분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높은 편이었다. 한편 연구에 참여한 김 교사는 4년제 대학교에서 음악(성악)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유아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유아 음악 전담교사

양성 사설기관의 유아 음악담당 부장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현재 D시의 여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음악수업을 담당하는 프리랜서 유아교사로 현장경험이 풍부하다.

2. 연구절차

2.1 연구 사전 승인

본 연구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 해당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원장과 원감, 담당음악교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동의를 얻어 실시하였다.

2.2 참여 관찰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통합 음악 활동에서 유아들이 체험하는 음악적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유아들에게 있어서 음악하기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S 어린이집은 본 연구실시 이전에 연구자가 예비유아교사 참여수업을 했던 곳이라 유아들과의 래포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관찰은 주 1회, 원의 학급 운영과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음악교사의 수업시간에 이루어졌다. 교사와 유아, 유아와 유아 간의 대화와 상호작용, 각각의 활동에서의 연구자의 느낌과 해석을 기록해 두었으며, 비디오 촬영을 실시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회의 예비관찰을 거쳐 2011년 9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본 연구자가 주 1회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유아들의 음악수업을 총 12회 참여 관찰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관찰하는 동안 본 연구자는[13]이 제시한 3단계 관찰방법을 참고로 하여 유아들의 음악수업을 관찰하고자 노력하였다. 3단계 관찰법이란 관찰 장면을 표면적이고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기술적(descriptive) 관찰, 관찰 장면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아의 행동을 중심으로 초점을 좁혀 관찰하는 집중적(focused) 관찰, 그리고, 유아의 특정한 상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선별적(selected) 관찰을 말한다. 먼

저, 2회의 예비관찰을 통해 유아들과 연구 참여 김 교사와 자연스럽게 레포 형성을 하였으며, 햇님반 유아들의 일상생활 습관, 놀이 방식, 특히 자유선택활동시간에서의 음률 활동 등을 대략적으로 관찰, 이해하고자 했다. 그 다음,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음악교사와 유아들의 음악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체적인 음악활동 현상들에 초점을 맞추고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참여관찰을 통해 발견한 유아들의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특성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면서 불분명한 자료에 대한 확인 등을 위해 '선별관찰'을 실시하였다. 1회 수업 소요 시간은 약 25분이었으며, 관찰되어진 음악수업의 전반과 특정 상황이나 활동장면을 가급적이면 생생하고 심층적으로 전사·기록하였다.

한편 자료 분석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첫째, 음악수업에서 관찰된 여러 현상들을 기록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읽으며 의미나 빈도 등에 따라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 이로부터 특징적인 용어 및 단어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둘째, 단어들 간의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분류하고 다시 하위개념을 재분류해가는 과정에서 관련 있는 내용끼리 연결, 분류하였으며, 분류한 내용들을 명명화하여 범주화 목록을 작성하였다. 셋째, 범주화목록에서 핵심 단어들을 주제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과하였다.

4. 연구결과의 신뢰성 검증

연구자는 연구 자료의 해석과정에서 나오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인 김 교사에게 의문점을 물어 보고 확인하였으며,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S 어린이집의 원감 교사와의 의견교환 과정 및 유아교육과 교수와의 면담 및 조언을 통해 삼각 검증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연구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연구자의 참여관찰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합 음악 활동을 중심으로 유아의 음악 하기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여 유아들의 음악 활동은 '유아들의 음악적 경험의 의미'와 '유아들에게 있어 음악하기의 의미'로 크게 범주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하위 주제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기술하였다.

1. 음악적 경험의 의미

음악적 경험이란 다양한 시대와 문화의 음악을 듣고 악기나 목소리로써 음악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음악적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음악을 만들고, 음악에 신체적으로 반응하는[1]등의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음악 활동을 유아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관찰을 통해 매 수업 시간마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음악활동 영역과 유아들의 음악적 경험을 범주화한 결과, 유아들의 음악적 경험의 의미는 노래 부르기, 음악 듣기, 신체표현하기, 리듬 및 박자 익히기, 악기 연주하기로 나타났다.

1.1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는 유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악적 경험의 하나이다. 노래 부르기를 하는 동안 유아들은 자신과 또래의 목소리는 물론 교사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음악적 요소와 개념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 그러나 햇님반 유아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기 보다는 기존에 배워 이미 알고 있는 노래를 단순히 불러 본다는 것과 교사의 노래를 따라 불러 본다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노래 부르기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노래 부르는 울동과 함께 구성되어 신체표현이 수반될 때 유아들은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표현하였다. 특히 노래 부르기를 할 때 교사가 피아노 반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아노 음색과 선율을 통한 교사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D 플레이어의 전자음 반주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듯 노래 부르는 유아들의 모습에서 노래 부르기의 의미 있는 경험 구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수업을 통하여 노래 부르기만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다.

1. 음악교사 ; 여러분 잘 지냈어요? 선생님이랑 오늘도 신나게 노래해 볼까요? 여러분 일어서서 손 허리하세요. / 유아들 ; 네 (큰 소리로 대답한다. 어떤 유아들은 반주가 나오기 시작하자 신이 나서 노래를 신나게 부른다) / [교사가 큰 소리로 영어 노래 I like turkey를 부르기 시작하자 유아들이 따라 부른다. 이번에는 교사가 음악을 틀어 주며 율동을 시작하자 유아들이 교사의 율동을 따라한다. 아마 계속 배우고 있던 내용이어서인지 제법 익숙하게 따라한다. 어떤 유아는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율동을 하고 또 다른 유아는 따라하지 않고 옆 친구와 장난을 친다]

(2011, 10, 20. 참여관찰)

1.2 음악 듣기

유아들에게 음악 듣기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첫째, 교사의 입장에서 유아들이 소란스러워주의를 집중 시킬 필요가 있을 때 교사는 언어적인 지시 없이 CD를 틀어 주위를 환기시켰다. 교사가 음악 듣기 활동을 '감상'이라는 단순한 활동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주의집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칫 음악 감상의 본질을 저하시킬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기도 하였다.

2. [음악교사가 음악을 틀어 유아들의 주의를 끈다.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니라 동등거리는 소리, 우우우하는 소리같이 특이한 음색이 들리자, 유아들이 긴장하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용해진다] / 음악교사 ; 원숭이 마음에 오니,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북소리가 동동, 신비스러운 음색이다) 원숭이들이 춤추며 내는 소리 같아요. 우리도 한 번 따라해 볼까요? 원숭이들이 춤추며 내는 소리 같아요. 우리도 한 번 따라해 볼까요? 우우우- 아이아아- 끼끼끼- 뚜루루왁. 우차차차-. / 유아 ; 와, 인디언 노래 같아요. 지난 번 라이언 킹 비디오 봤을 때 들어 본 적 있어요.

(2011, 9, 7. 참여관찰)

유아들의 입장에서 살펴본 음악 듣기는 수업 시 전개되는 동화 이야기의 요소들을 부각시키고 여기에다 극

적인 효과를 더해 주는 음악적 요소를 결합시켜, 음악적 요소와 이야기적 요소들을 함께 이해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때 효과적인 것으로 보였다. 특히 유아들은 악곡을 들으며 악곡의 음색이나 빠르기 등으로도 곡의 분위기를 재빨리 감지하는 듯 보였다. 교사는 동화 내용을 연상할 수 있는 음악적 요소들이 포함된 악곡을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유아들의 음악듣기 활동이 지루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음악교사 ; 자, 우리 정글에 온 거예요. 저기쯤에 모글리가 있을 거예요. (동화를 계속해서 들려준다. 유아들 조용히 듣는다) 모글리가 동물 친구들을 이리 저리 둘러보며 찾고 있어요. '내 친구 바루는 어디 갔지?' 그 때 누군가 모글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어요. (교사가 음악을 틀자, 느리고 약간 저음인 단순한 선율이 나온다. 유아들이 귀를 기울이듯 주의깊게 듣는다) 음악을 듣고 누구일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고 있을까요? / 유아들 ; (잠시 있다가) 코끼리요, 사자, 뱀, 호랑이, 토끼, 거북이, 코알라. / 음악교사 ; (팔로 거북이가 걷는 모습을 흉내 내며) "나는 이렇게 느려서 모글리를 구해 줄 수 없어." (교사는 거북이 흉내를 여전히 내며 말도 천천히 한다. 유아들, 잠시 생각하는 표정이다) / 유아들 ; 아, 거북이다. / 음악교사 ; "친구들이 나를 빨리 알아보네."(거북이 음성 흉내내듯 웃으며 천천히 말한다) (이번에는 CD를 틀자 매우 빠른 리듬의 피아노 선율이 나온다) / 유아1 ; (큰 소리로) 피아노 소리다.

(2011, 9, 7. 참여관찰)

1.3 신체 표현하기

음악은 동작의 요소와 분리되어 소개될 수 없으며 음악과 신체의 움직임은 유아에게 있어서 자기표현의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자기표현의 수단이 된다[7]. 유아들에게 있어서 음악적 경험의 대부분은 신체 표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체 표현 활동이 많이 관찰되었다. 유아들은 곡을 듣고 노래를 부르며 또한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신체의 율동, 즉 움직임으로 나타내었다. 유아들의 신체 표현은

전체 혹은 개인의 움직임으로,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 유아들이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출구였다. 따라서 유아들의 신체 표현은 즉각적이고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자기표현반응이라 할 수 있겠다. 추상적인 음악의 요소들을 신체 표현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으로 바꾸는 것[7]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보이는 소리로 바꾼다는[1] 달크로즈의 교수법의 원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음악 활동에서의 신체 표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사는 음악의 썸머림에 맞추어 표정과 동작을 크게 혹은 작게 표현함으로써 유아들이 리듬적 요소들을 쉽게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반복하였으며, 유아들과 함께 기차꼬리 대열을 만들어 놀이하듯 함께 참여함으로써 '친구 같은 선생님'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다. 유아들의 신체표현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교사 역할의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4. 음악교사 ; 숲 속에 동물들이 많으니까 즐기차를 만들어서 선생님을 잘 따라 오세요. (교사가 I like turkey 노래를 부르며 교실 돌레로 걸어 나가자 유아들도 원을 그리며 돈다. 노래 리듬에 따라 빠른 리듬에서는 빨리 종종 걸음을 걷고 느린 리듬에서는 천천히 여유 있게 걷는다. 이때 손뼉 치기도 함께 한다. 유아들에게는 리듬을 맞추다기보다는 그저 친구들과 기차처럼 꼬리를 만들어 걷고 뛰는 것이 즐겁고 신나한다)

(2011, 10, 12. 참여관찰)

1.4 리듬 및 박자 익히기

음악 수업에서 리듬의 반복 연습은 눈에 띄는 음악 활동이었다. 교사가 제시한 동화의 모티브를 이용하여 예를 들면 여러 의성어으로써 다양한 리듬을 만들고, 그것의 구음으로 리듬 창을 반복 하였으며, 리듬과 박자에 맞춰 손뼉 치기와 손 유희, 또는 걷고 달리기 등과 같은 신체적 활동을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리듬과 박자가 몸에 스며들도록 하였다. 특히 교사가 동화 속에 나오는 의성어를 모티브로 하여 리듬 구음을 만든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음악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 간의 통합적 경험[10][17]이 가능할 수 있는 교사의 창의성이 발휘된 부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5. 음악교사 ;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기 모글리가 늑대들을 보고 방긋방긋 웃으며 "빠빠빠빠빠빠" 하는 거예요. 아기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교사가 "빠빠빠빠빠빠"라는 말에다가 리듬을 붙여 리듬 창을 하자 유아들이 따라한다. 몇 번을 따라하게 한 후에 유아들에게 다가와 유아 한 명씩에게 시켜본다. 교사가 리듬을 다르게 하자 유아들이 헛갈려하며 목소리가 작아진다. / 음악교사 ; 잘 했어요. 그럼 원숭이들은 어떤 소리를 낼까? / 유아들 ; 끼끼, 우우우, 그거는 여우잖아. 아니다, 그건 바람부는 소리잖아. / 음악교사 ; 다 맞아요. 끼끼끼끼끼끼끼. 선생님! 이것을 어떻게 노래하는지 잘 듣고 따라해 봐요. (교사가 리듬을 붙여 큰 소리로 리듬 창을 한다) / 유아들 ; 끼끼끼끼끼끼끼. / 음악교사 ; ㅇㅇ가 해 볼까요? (다양하게 리듬을 바꿔 먼저 제시하고 따라하게 하지만 어려운 가보다. 어떤 유아는 끼끼 대신 꼬꼬 발음을 낸다. 빠른 리듬은 더 어려운 가 보다. 교사가 유아들 앞으로 가서 리듬을 제시하고 유아들은 잘 듣고 따라한다. 잘 따라하지 못하는 유아들에겐 다시 천천히 가르쳐 주고 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고 도와주는 교사의 모습이 아름답다)

(2011, 10, 19. 참여관찰)

한편 리듬 및 박자 익히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아들의 행동은 '모방'이었다. 교사는 유아들에게 리듬 창을 구음으로 시범 보이고 따라하도록 하였다. 유아들이 다 같이 여러 번 반복 연습한 다음, 개별적으로 유아를 지명하여 리듬 창을 시켰을 때 거의 대부분의 유아들이 교사의 시범 보인 리듬 창을 즉각적으로 따라하였다.

6. 음악교사 ; 자, 오늘은 우리 모두 숲 속에 가 볼까요. ('정글'이란 단어 대신 '숲'이란 단어를 쓴다) 그런데 숲 속 커다란 동굴 앞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유아들 눈들이 말뚱말뚱, 궁금한 듯 조용히 선생님을 바라본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기가 늑대 가족을 보더니 '빠빠빠빠빠빠' 하고 웃는 거예요. (교사가 '빠빠빠빠빠빠'로 리듬 창을 하자 유아들이 리듬을 구음으로 따라하며 손바닥으로 무릎 리듬 치기를 한다)

아기가 어떻게 웃는지 흉내 내어 볼까요? (교사가 유아 한 명씩을 지명하여 교사의 리듬 창을 따라해 보도록 한다)

(2011. 10. 19. 참여관찰)

1.5 악기 연주하기

악기 연주하기 활동은 노래 부르듯 유아 자신이 내면세계, 즉 느낌이나 정서, 심정을 악기라는 매체를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악기 연주에 의해 나타나는 타인의 내면세계를 향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8]. 그런데 실제 유아들의 음악 수업에서 보여지는 악기의 개념은 일반적인 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유아들이 생각하는 악기란 어른들이 생각하는 악기의 개념과 많이 달랐다. 유아들에게 악기란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것'이라는 개념이 지배적이었다. 즉 흔들거나 두드리거나 부딪혀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사실 음악 수업에서 유아들에게 제공되는 악기는 거의 리듬 타악기 종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흔들고 두드려 소리 내는 것이면 유아에게 유용한 악기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어느 정도 뒷받침 해 준다. 교사는 선율 악기가 아닌 쉬운 리듬 악기들로써 놀이를 하듯 악기 소개를 하였으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리를 만들어 보고 소리들을 구분하게 하였다. 이러한 소리들은 유아의 신체에서 나는 소리와 흡사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우리 몸도 훌륭한 악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악기 연주의 시작을 '다양한 소리 듣기' 활동과 연계시킨 점이 두드러져 보였다.

7. 음악교사 ; 선생님 가져온 걸 보여 줄게요. (웃처럼 가늘고 긴 나무 막대이다) 어, 이걸로 어떻게 소리를 내지? / 유아들 ; 두 개 있어야 해요. / 음악교사 ; 맞아요.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두드려서 소리 내는 악기예요. 이름은 '리듬 스틱'이라고 불러요. (교사가 유아들 이름을 부르며 일일이 나눠 준다. / 유아들 ; 우와, 젓가락 같다. 아니다, 막대기처럼 생겼다(바닥에 대고 두드리고, 두 개를 두드려 소리 내 본다) / 음악교사 ; 옆 친구 조심해서 연주해야 해요. 악기 바닥에 놓고 손

무를 하세요. 이제 악기 들어요. 선생님을 따라하세요. (교사가 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리듬치기를 한다) (두 개를 서로 비비며) 비벼볼까요?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귀에 대고 들어봐요. / 유아 ; 신기한 소리가 나요, 우리 누나 학교에서 하는 것도 이거랑 비슷한 소리 나요. 어, 이렇게 해도 소리 나요(옆 친구의 리듬 스틱에 대고 두드려 본다, 유아들 표정이 어떻게 하면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진지하다).

(2011. 9. 28. 참여관찰)

2. 유아들에게 있어서 음악하기의 의미

2.1 유아들에게 음악하기는 움직임 만들기이다.

유아들에게 있어서 음악 활동은 크고 작은 여러 움직임을 만드는 활동이었다.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며, 또 그 느낌들을 표현하는 전 과정이 즉흥적인 신체운동과 함께 나타났다. 즉 몸을 흔들고 천천히 걷다가 멈추고, 빨리 걷다가 달리며, 손동작이나 팔 동작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유아의 초기 발달은 감각적이고 운동지각적인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작으로 표현하기는 유아 음악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된다[6]. 또한 달크로즈는 '인간은 본래 신체적으로 리듬감을 갖고 태어난다'고 보고, 유아의 음악적 감각은 몸의 움직임과 직결되기에 음악적 리듬감을 발달시켜 주기 위해 신체 움직임을 통한 리듬 감지학습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1]. 이러한 점은 유아들에게 음악 활동을 어떻게 접근하고 구성하여야 할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순히 기교의 습득이나 형식적으로 외워서 부르는 노래 부르기를 위한 음악 교수 학습이 아니라 유아들이 자신의 신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리듬을 느끼고 체험 하며, 그것을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유아들의 음악에 따른 신체 표현은 유아 자신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8. 음악교사 ;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둥글게 둥글게 원을 만들어 볼 거예요. 동그라미

만들자, 만들자, 만들자, 예쁘게 만들자. (노래를 부르며 둥글게 원을 만든다) 우와, 금방 잘 만들었어요. 노래 부르며 원을 만드니까 동그렇게 예쁜 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2011. 11. 2. 참여관찰)

2.2 유아들에게 음악하기는 따라 하기를 통한 마음의 주고받기이다.

먼저 음악하기는 유아들에게 모방하기 활동이었다. 음악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노래 부르기, 리듬 익히기, 악기 연주하기, 신체 표현하기 등의 거의 모든 활동에서 교사의 시범을 모방하고 또래 유아들의 행동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아직 음악적 요소와 개념에 대한 인지적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아들에게 음악을 학습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음악이라는 교과의 특성상 학습자인 유아는 교사와 또래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기가 용이하기에 모방을 통하여 타인의 생각을 수용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모델을 창조 할 수 있다고 생각 된다.

한편 유아들의 음악 수업은 교실 바닥에 카펫을 깔고 유아들이 원형으로 앉거나 서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은 음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유아와 유아 간, 유아와 교사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이유에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유아들은 서로 마주 보고 앉음으로써 교사와 또래 유아들의 행동을 쉽게 따라하고, 그들의 표정 및 울동에 직접 반응할 수 있다. 유아들은 공통의 관심 있는 사물에 대해 보통 언어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몸짓, 행동, 표정 등과 같은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함께 활용 한다[3]고 하였다. 유아들은 또래의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열고 주고받으며 만남과 소통의 상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유아들은 말이나 글과 같은 언어적인 소통 없이도 또래와 마음을 공유할 수 있었다. 유아들은 음악하기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교사 및 또래들과 마음을 주고받는 것과 같은 우호적인 관계 맺음을 할 수 있었다.

9. 유아들 ; (삐죽삐죽 자기 자리로 들어가 앉는다. 교사가 악기를 한 명씩 나눠주자 유아들 바닥에 대고

두드리고, 입에도 넣어보고, 두 개를 같이 두드려본다) 젓가락 같다. 막대기다. (한 유아가 악기를 한 손에 하나씩 쥐고 두 개를 함께 두드리자 바로 옆의 유아도 그 유아를 따라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따라한 유아가 친구가 쥐고 있는 악기에 자신의 악기 하나로 툭툭 두드려본다. 그러자 이 유아도 또래의 악기에 친구가 했듯이 똑같이 툭툭 두드리고서는 둘이서 마주보고 웃는다)

(2011, 9, 28. 참여관찰)

2.3 유아들에게 음악하기는 즐겁고 기대되는 놀이이다.

유아들은 음악 활동을 즐거운 놀이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음악이라는 과목의 고유한 성격 때문인지 즐겁고 자유로우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분위기가 수업 내내 이어졌다. 유아들은 교사의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에도 몸을 자유로이 움직였고 또래와의 상호 작용도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교사 또한 유아들에게 혹은 유아의 음악적 활동에 대해 기대나 평가를 엄격히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아들에게 음악하기란 즐거운 놀이임을 의미한다. 또한 매 수업 때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악기로 써 어떠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궁금하고 기다려지는 놀이로서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0. 음악교사 ; 스카프예요. 모두 눈 감으세요. (교사가 일일이 색색의 스카프를 유아들 머리에 덮어씌운다. 교사가 나눠주는 동안 유아들은 벌써 다 확인하고서는 자기 것이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이라고 다 얘기한다) 눈 뜨세요. (교사가 ‘호두까기 인형’곡에 나오는 주선율을 노래로 부른다. 보자기를 두 손으로 쥐고 흔들며 보인다. 유아들도 스카프를 흔들며 친구들과 장난치고 머리에 덮어 쓴다. 교사가 스카프를 머리 위로 던졌다 받았다하니, 유아들도 따라하며 즐거워한다. 스카프를 던지고선 ‘슈우’ 하고 고향도 지른다. [교사가 CD를 틀자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모음곡 호두까기 인형 선율이 나온다. 교사가 스카프를 들고 교실을 돌자 유아들도 원을 그리며 걷다 뛰다 한다. 그냥 걸어도 좋을 텐데 스카프를 들고 걸으며 유아들은 나비가 나는 모습을 흉내 낸다]

(2011, 11, 23. 참여관찰)

2.4 유아들에게 악기는 곧 놀잇감이다.

유아들에게 악기란 일반적인 악기의 개념과 달랐다. 유아들에게 악기의 쓰임새나 주법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 유아들은 악기의 겉모습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악기를 만지작거리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색상이나 모양 같은 외형적인 차이를 발견하려 하였으며, 어떤 유아들은 악기를 입에 넣기도 하였다. 악기란 오히려 놀잇감으로서의 비중이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유아들에게 있어서 악기란 곧 놀잇감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유아들의 모든 놀잇감은 악기가 될 수 있다는 말과도 상통한다. 이미 고정되고 정형화된 악기로서의 악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소재와 도구로서의 악기라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이 악기로 이용할 수 있는 악기 소재의 다양성은 음악하기 활동을 놀이로 볼 때 유아들에게 흥미와 놀이적 요소를 더해 주는 가치적이고 구체적인 놀이 도구, 즉 놀잇감으로서의 다양한 활용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러한 점은 유아들을 위한 교육적 소재를 일상생활에서 선택하여 일상과 연계된 활동을 고려함으로써 유아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1. 유아들 ; 나, 반짝거리는 거요. 나두요. 우와, 내꺼가 더 반짝인다. (악기를 받은 유아들이 입에 넣어보고 흔들어 보고 바닥에 두드려 본다) 이것 봐. 두 개를 합치니 젓가락 같이 된다. 우와, 여기 방울도 달렸다.
(2011. 9. 28. 참여관찰)

2.5 유아들에게 음악하기란 진짜로서의 '나' 를 찾아가기이다.

유아들에게 음악하기란 가만히 앉아서 음악을 듣고 무언가를 느끼도록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다. 유아들은 음악하기를 통해 단편적이고 분리된 음악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흥미에 기초하여 사고를 확장시키고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직접 경험하며 음악 활동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음악적 즐거움과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고 구성하고자 하였다. 유아의 음악하기의 자발성은 유아의 일상에 연

계되고 깊숙이 전이되어 유아가 자신의 존재를 가지 있고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의미 있는 도움을 준다.

12. 음악교사 : 자,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악기와 손수건, 공, 보자기, 홀라후프, 줄넘기 등을 준비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표현하고 놀면 되요. 혼자서든 친구랑 같이 하든 즐겁게 해 보세요. (음악을 틀어준다) / 유아들 : 우와, 신난다. 나는 보자기 쓰고 슈퍼맨 놀이 해야지, 나는 나비다. 우리 홀라후프 돌리기 하자, 아니야 이거 뭐 어넘기 해 보자. 이건 처음 보는 악기잖아, 우와 신기한 소리 난다. [유아들은 음악에 맞춰 율동을 하고, 악기 연주도 하며, 노래를 부르다가 친구들과 게임도 한다]
(2011, 11, 30. 참여관찰)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들의 음악 활동을 통하여 유아가 경험하는 음악적 경험과 음악하기의 의미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유아의 음악적 경험에 대한 이해가 음악 활동이라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해석의 차원이라면, 유아의 음악하기의 의미에 대한 이해는 유아들이 직접 경험하고 구성하는 음악하기의 본질에 보다 깊숙이 접근하려 한 깊이 있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유아들의 음악적 경험은 노래 부르기, 음악듣기, 신체 표현하기, 리듬 및 박자 익히기, 악기 연주하기로 범주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하며 자신과 또래와 교사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접한다. 그러나 실제의 노래 부르기 활동은 유아들이 기존에 배워 이미 알고 있는 노래들을 암기하여 큰 소리로 부르는데 거의 국한되어 있다. 노래 부르기를 하며 곡에 내재된 분위기나 음악적 요소들을 이해하고, 마음속에서 우리나라는 즐거움과 감동을 기꺼이 나타내고자 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유아들은 노래 부르기 활동을 단순히 목소리 내기라는 형식적인 차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했다. 또한 개별적이고 소그룹적인 형태의 노

래 부르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아 전체가 함께 부르는 형태로만 거의 구성되었다. 한편 유아들은 노래 부르기가 단일 활동으로 제시될 때 보다는 율동이나 피아노 등의 다른 반주 매체와 함께 제시될 때 훨씬 더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교사는 유아들이 노래 부르기 활동을 할 때, 형식적이고 방법적인 차원이나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의 결과적인 면의 모색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기를 통해 유아들이 미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고 자신의 내적인 면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들의 음악 듣기 활동은 단일 활동으로 보다는 수업 시 전개되는 동화나 율동적 요소들과 연계되어 동화의 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거나 유아들의 자발적인 율동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활동임을 알 수 있었다. 유아들은 음악적인 요소와 동화의 내용을 연계하여 생각하고 느끼는 듯, 유아들은 음악을 주의 깊게 듣고 연상되는 단어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아들의 음악 듣기 활동 고유의 의미를 찾기에는 극히 빈약하였다. 음악듣기 활동이 '감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음악 듣기 활동 후 조형이나 이야기 나누기, 신체표현 등 다양한 추후 활동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봄도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유아들에게 신체표현 활동은 여러 음악 활동 중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활동이었다. 악곡을 듣고 노래를 부르며, 리듬을 익히고 악기를 연주하는 전 과정에 유아들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크고 작은 신체의 움직임으로 구체화시켜 표현하였다. 신체표현 활동은 자발적이고 즉각적이며 즐거움을 동반하며 유아 스스로가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음악 활동이었다.

넷째, 리듬 및 박자 익히기와 악기 연주하기 활동은 내용적으로 상호 연관된 활동이었다. 수업에서 제시된 동화속의 의성어나 의태어 등의 모티브를 이용하여 다양한 리듬을 붙이고, 그것의 구음으로 리듬 창을 반복하였다. 또한 간단한 신체 활동과 함께 이루어져 리듬의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도록 하였다. 한편 이러한 점은 유아기의 악기 연주가 신체적 리듬운동에

서 출발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수업에서 사용된 악기가 거의 리듬 타악기 종류였으며 리듬 학습을 위해 활용되었다. 또한 유아기에 있어서의 악기란 연주를 위한 악기가 아니라 연주 이전 단계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유아들에게 악기란 흔들거나 부딪쳐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새로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위에서 살펴 본 유아들의 음악 활동의 실체를 토대로 유아들의 음악하기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유추해 보고자 한다.

첫째, 유아들은 음악하기를 하며 자신의 내면적인 정서와 인지를 자신의 신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즉각적인 움직임으로 만들어냈다. 음악적 경험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단편적인 음악적 개념과 요소들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유아가 자신의 내면을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긍정적인 마음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가지도록 돕는다. 또한 유아들은 음악 활동에서 교사 및 다른 유아들을 모델링으로 하여 계속적인 따라 하기 행동을 하였는데 이것은 모델링, 스캐폴딩이라는 학습적인 차원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유아들은 또래, 즉 친구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주고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관계 맺기의 의미는 실제 음악 연주 시 연주자와 청중들과의 결코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 속에서 공감의 희열을 기대하고 나눌 수 있음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유아들은 악기를 음악 연주를 위한 악기로서 인식하지 않았다. 유아들에게 악기란 곧 놀잇감이었다. 다시 말해 소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생활용품들도 유아의 악기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견해는 악기 및 악기 소재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 보다 폭 넓은 선택의 여지를 제공한다. 이처럼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놀잇감으로서의 악기에 대한 이해는 유아들로 하여금 음악하기란 어렵지 않고 기대되고 즐겁고 신나는 놀이로 인식하게끔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해 준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에게 음악하기란 유아들로 하여금 사고가 개입된 흥미를 유발시켜 유아 자신의 내면을 스

스로 발견하고 표현하도록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음악하기를 통해 진짜의 자기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음악의 본질적인 측면에 다가갈 때, 음악이 단지 다른 교과나 교수방법의 효과를 상승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왜곡되어지고 있는 근래의 음악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서 살펴 본 내용들은 결국 실제 유아교육기관에서 행해지는 음악수업의 본질이 musicing인가 혹은 doing music인가의 문제에 부딪치게 한다. 진자가 유아들의 입장에서 유아가 활동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교사의 입장에서 교사가 요구하고 주도하는 교수 방식에 의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음악적 배움을 유아가 수동적으로 행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다. 즉 유아 음악교육에서 교사들이 계획하고 주도하여 성인인 교사가 보고 듣기에 좋은 틀에 맞춘 음악적 성취를 유아에게 강요하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과 중심의 음악 만들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아가 직접 음악적 행위를 하는 과정들이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현재 유아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유아 자신의 의도대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직접 음악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현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의 음악수업은 아직도 후자의 경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해서도 되면서도 안 될 것이다. 엘리엇은 "커리큘럼은 문서화된 계획이 아니라, 교사 자신이 되어야 한다."며 교수-학습 상황을 조성하고 이끌어나가고, 문제를 해결하고, 유아들의 순간 순간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단서는 문서화된 커리큘럼이 아니라 바로 교사 자신임을 강조하고 있다[15]. 이는 유아음악수업에서의 유아들의 음악하기의 목적과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 유아음악 커리큘럼의 성격 및 구성에 대해 의미 있는 제안을 함과 동시에 유아음악교육에의 깊은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하루 일과 중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유아들이 음률영역에 비치되어 있는 악기에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 악기들이 진열장에 전시된 진열품, 장식품으로서가 아니라 유아들이 직접 만져보

고 소리를 내어봄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독특한 음악적 경험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유아들의 '음악하기'란 단편적인 음악적 성취나 결과의 차원을 넘어 통합적 음악활동 및 음악적 경험 그 자체이며 목적인 것이다[1].

따라서 교사는 유아의 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서툴다 하더라도 유아 스스로 만들어가는 다양한 음악적 행위들, 즉 유아들의 '진짜의 음악적 경험(authentic music experience)'[4]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교사의 입장이 아니라 유아의 입장에서 자발적이고 즐거운 음악적 체험이 가능할 때 유아들의 진짜의 음악적 경험과 음악하기도 가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음악교육의 기초*, 교육과학사, 2005.
- [2] 길병휘, 김만의, 류성립, 석문주, 송언근, 이명숙, 이종일, 정용교, 조영남, 조용기, 최신일, 최창우, *교육연구의 질적접근*, 교육과학사, 2001.
- [3] 김기에, 이소은,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능력에 따른 유아의 실행기능과 또래 상호작용",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14권, 제1호, pp.167-197, 2007.
- [4] 석문주, "음악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32권, pp.31-63, 2007.
- [5]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음악교육의 이해와 실천*, 교육과학사, 2006.
- [6] 심성경, 이희자, 이선경, 김경의, 이효숙, 박주희, *유아음악교육*, 양서원, 2012.
- [7] 윤은미, "음악과 동작의 통합 활동에서 나타난 유아의 반응 탐색", *유아교육연구*, 제27권, 제3호, pp.93-120, 2007.
- [8] 이민정, "유아 음악활동의 의미에 대한 현상학 이해", *교육인류학연구*, 제5권, 제2호, pp.55-82, 2002.
- [9] 이영, 유애열, *유아를 위한 음악활동의 이론과 실제*, 융성출판사, 1985.

- [10] 이태분, 신인숙, “상호작용에 의한 음악활동이 유아의 음악능력과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제32권, 2007.
- [11] 임은애, “통합음악교육을 통한 유아의 음악적 흥미변화에 관한 질적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34권, pp.87-114, 2008.
- [12] 정진원, “통합교과적 접근에 대한 이해와 음악지도에서의 의미 탐색”, 음악교육연구, 제34권, pp.139-169, 2008.
- [13] 조용환,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1997.
- [14] 이희봉 (역),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 1988.
- [15] D. J. Elliott, “Rethinking music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 Vol.2, No.1, pp.6-15, 1992.
- [16] D. J. Elliott, *Music matters*,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17] J. C. Raisner, *The effect of rhythmic music activities upon language acquisition with four years old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mple University, 2002.

저 자 소 개

김수임(Soo-Im Kim)

정희원



- 198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문학사)
- 199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전공(문학석사)
- 1999년 8월 :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1992년 8월 ~ 현재 : 대구공업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 영유아프로그램